

“존중이라는 선 지키기 때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져요”

혼성밴드 '쟁이' 콘서트 'MJ세대'
1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재즈 버전의 K-POP' 기대



혼성 밴드 '쟁이', 김민수(베이스-왼쪽부터), 유태경(드럼-리더), 강신정(간편), 이관우(기타) <쟁이 제공>

“선을 지키기 때 선을 만들어져요”
MZ세대가 주축이 된 혼성 밴드 '쟁이' (Jaeng-E)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어느 시절이나 혼성 뮤지션들은 다양한 음악대와 하모니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합을 맞춰 온 혼성 팀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혼성 4인조 밴드 '쟁이'가 쌓아온 8년의 음악이 궁금했다. 막상 그들의 활동에 대해 듣고 보니 궁금증이 풀리고 기대를 갖게 됐다.

“성별이 다르기에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팀을 유지할 수 있던 건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선은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지키기 때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음악적 친밀감에 집중하다 보니 혼성 밴드의 시너지 낼 수 있었죠”

밴드 '쟁이' 이끌고 있는 유태경의 말이다. 쟁이는 정규멤버 4인에 객원 2인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 밴드다. 2015년부터 호신대 드럼, 기타, 건반, 보컬 등 전공자들이 주축이 돼 팀을 꾸렸다. 이들은 콘서트 'MJ세대'를 오는 15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앞두고 있는데 팀명도 공연명도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진행된다.

“팀명 '쟁이'는 순수 우리말 '쟁이'에서 착안했어요. 각자 맡은 악기를 가지고 논다는 의미를 담았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성을 강조하는 '쟁이'보다는 '쟁이'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콘서트 주제인, MZ세대를 연상케 하는 공연명 'MJ세대'도 이목을 끈다. 유 씨에 따르면 멤버 전원이 소위 'MZ세대'인데, 이들이 즐겨듣는 아이돌 음악에 재즈(Jazz) 색깔을 곁들였다는 의미에서 두 단어의 첫 알파벳을 본따 만든 조어다.

8년 간의 팀활동 중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묻자 “중간중간 멤버 교체가 있었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팀을 탈퇴하는 멤버들을 볼 때 안타까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서로가 처한 입장이 있었기에 밴드를 떠나는 멤버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랐다”며 “남은 멤버들은 흔들리지 않고 음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 광주음악제 '과거로 미래로'에서 밴드 쟁이가 'Estrella', 'BUTTER' 등을 연주하는 모습 <쟁이 제공>

낭만 가을...바그너·브람스 선율로 채우다 광주시향, 11일 광주예술의전당

바그너와 브람스 선율로 채워지는 클래식 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은 제378회 정기연주회 'Wagner: Brahms'를 오는 11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바그너의 악극 네 편과 브람스 곡 단편을 감상할 수 있다. 바그너 작 '로엔그린 3막 전주곡'이 울려 퍼진 뒤, '로엔그린 중 엘자의 꿈'을 연주할 예정. 웅장한 금관악기들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동시에 고통받던 엘자가 구원자 로엔그린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악극에 갖는 희비를 느낄 수 있다.

“홀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며”도 레퍼토리에 있다. 소프라노 서선영 협연.

바그너 곡 탄호이저 중 '노래의 전당'도 들을 수 있다. 사랑에 대해 음악을 강조했던 중세의 분위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너스와 사랑에 빠졌다가

연인 엘리자베트가 기도해 구원, 죽음을 동시에 얻는 이야기를 악상에 담았다. 이어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이 울려 퍼진다.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98번'이 대미를 장식한다. 그가 남긴 4개의 교향곡 중 베토벤 이후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독일 교향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작품.

소프라노 서선영은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동 대학원 전문사 졸업 후 독일 뒤셀도르프 슈만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예술감독 홍석원은 오스트리아 오페라극장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석카펠마이스터를 역임했다. 서울대 작곡과,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홍석원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브람스 교향곡, 그중에서도 진한 호소력을 가진 마지막 교향곡 4



지휘자 홍석원

소프라노 서선영

번을 연주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바그너의 낭만적인 곡 등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 등.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보면 볼수록 '좋은 친구들'

김해성 개인전, 내년 2월3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눈어 '학이편'에는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나는 기쁨과 인연의 소중함을 의미한다.

옛날과 달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 친구의 본질적인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친구의 정의와 범위, 관계 양상 등은 예전과 달라진 면이 있다. 사회 트렌드와 맞물려 있지만 우선 친구의 범위와 관계가 다양해졌다. 사람을 떠나 애완동물, 꽃, 나무, 자연 등 어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관계 맺는 방식도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

김해성 작가의 전시 '좋은 친구들-Good Friends' 전을 보고 있으면 미소를 짓게 된다. 그림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 때문이다.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친구의 의미를, 그것도 좋은 친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동화적이며 환상적인 그러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특유의 화풍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어디서 보아도 김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선이 부드럽고 둥글둥글하다.

작품들에는 소녀나 젊은 여인이 등장한다. 한결같이 친근한 미소와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소녀들은 행복하다. 무엇보다 작품마다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인물들이 제각기 동물이 나 새, 꽃 등과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꽃과 식물은 마치 소녀가 입고 있는 옷처럼 편안하고 화사하다.

작가가 상정하는 '좋은 친구'의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그리고 옷처럼 편안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림 속에는 동물과 동물이 친구이며, 꽃과



'좋은 친구들'

꽃이, 식물과 식물이 모두 친구다. 개와 고양이, 새와 여우 등 특별히 친소관계가 따로 없어 보인다. 동물은 꽃과 친구이며, 새 또한 동물과 친구이다.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친구가 달라지는 현대인들에게 작가의 '좋은 친구들'은 한번쯤 친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는 익숙하지만 잊고 있었던 친구의 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맑고 환한 기운을 통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켈트아트페어, 아트베이징(북경), 중앙미술대전 수상작가초대전 등 개인전 29회를 개최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선과 색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해성 개인전, 내년 2월3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진석 교수 '왜 인문학인가' 강연

한국학호남진흥원, 10일 목포대 70주년기념관

철학자 최진석은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이고 욕망에 집중하며 살라”고 권한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가 주체적이고 욕망하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그는 사단법인 '세말 새봄' 이사장, '세말새봄' 기본학교 교장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건명원(建明苑)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최진석 최진석 교수가 '왜 인문학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이 마련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강연회 강사로 나서 오는 10일(오후 1시) 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시도민들을 만난다.

평생 노장철학을 연구해온 최진석 교수는 지금까지 '노자의 묵소리로 듣는 도덕경', '인간이 그리는 무늬', '탁월한 사유의 시선' 등 굵직한 인문학 저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고전의 향기와 개인적인 이야기, 에피소드 등을



최진석 교수

점목한 책들은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최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인문학 및 인문학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교감할 예정이다.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강연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진석 교수의 깊은 사유와 성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인문학과 호남의 역사, 인물, 문화 등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연은 무료이며, 강연 외에도 식전 행사로 클래식 퓨전 공연도 마련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